





# 第4次 先進漁港 視察

## 視察대상多邊化 期間도 넉넉하게

새漁港技術深度있게 살펴

한국수산개발원(이하 수개발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차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선진어항시찰단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5일(목)까지 8박 9일 동안 일본(후쿠오카)의 오쿠우어항, 헤비안어항, 사시가와어항과 대만(타이베이)의 핑둥어항, 아류어항, 아류어항을 시찰, 현지어항건설기술현황, 관리상태 등 어항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실상황을 들어 조달청을 예제시했다.

### 出血受注늘어 過當競爭대문

정부는 시설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저가투찰에 의한 출찰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중 정부시설공사 집행실적은 장기계약공사를 포함, 모두 1천2백58건 총 2조7백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집행분은 7천5백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5백47억원에 비해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이 경쟁성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예정가격 85% 미만인 저찰공사비 수준에서 계약공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입찰건수 3백15건의 32%인 1백건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총 53%인 1백39건을 차지하고 있어 실용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수주기회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별 배정공사 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90.7.1.91.6)에는 대기업인 1, 2군에 총 2백57건 중 47.5%인 1백22건이 배정됐으나 올해(91.7.1.92.6)에는 중소기업인 3군 이하에 배정된 공사가 총 2백87건의 73%인 2백9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반기중 직공비 낙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로 입찰수가 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建設部공사계약요청제도 개선건의 對象金 20億원으로 契約所要인수短縮

건설부는 조달청계약요청대상공사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20억원으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군제한工事官報에 掲載받지 못함

조달청은 군제한 대상공사일 경우 지금까지 당초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한국수산개발원 어항사진 콘테스트는 오는 7월말도 마감된다. 우리나라 수산관련 사진의 새 "전성"을 개척한 한국수산개발원 사진홍보전심의를 통한 수상업과 관련된 그 동안 관련인사뿐만 아니라

제에 개별정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간건설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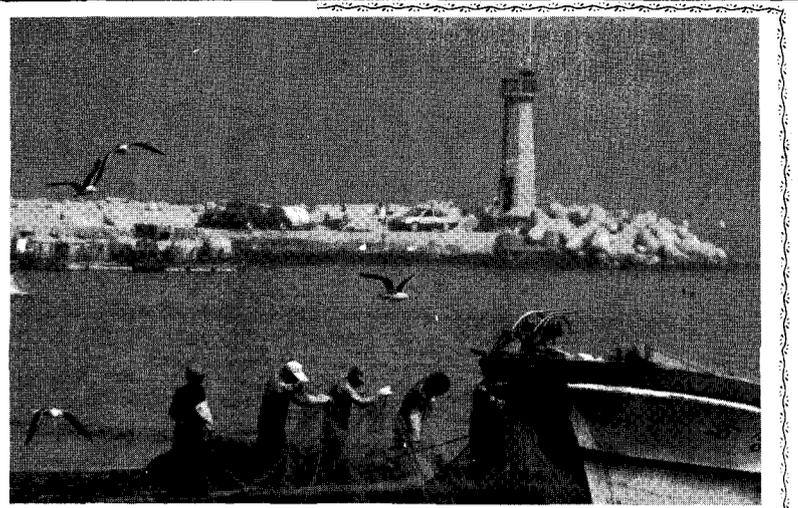
그러나 92년도 제한군 편성 및 운용 기준에서는 해당군 전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2항에 의거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자격자에 입찰공고문을 통보함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건설 및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

### 第5回 漁港寫眞公募 많은 應募바랍니다

아니라 지난해는 프로 사진작가들까지 대거 참여, 사진의 질적향상을 이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수상관련 인사 등 많은 사진작가 참여가 예상되어 좋은 작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建設內需진정持續

정부는 건설부자관리를 지속, 내수진정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재정외의 건축유동과 함께 행정규제조치를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상반기 경제유동실적과 하반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내수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수요관리 △건설경기진정△부



어항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시상부부 대상(1점) : 수산청장 상패 및 상금(50만원) ■ 금상(1점) : 수협중앙회 장 상패 및 상금(30만원) ■ 은상(2점) : 한국수산개발원 장 상패 및 상금(20만원) ■ 동상(2점) : 상패 및 상금(10만원) ■ 입선(10점) : 메달 및 상금(3만원) ■ 심사발표 : 92년 8월 20일(예정) 본회의지 및 개별통보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연신로 705-9 한국수산개발원 ■ 접수기간 : 92년 4월 1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 ■ 본회의 : 귀속하며 이를 전시 ■ 작품면의 활영장소, 화제, 심의, 주소를 필히 명기

## (株) 世一綜合技術公社

### SE IL ENGINEERING CO., LTD.

### 最新技術개발로 漁港發展에 寄與하겠습니다

#### 經營陣 및 技術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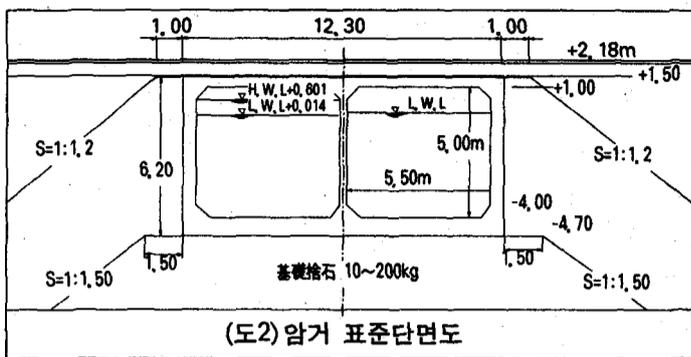
代表理事 社長	朱 宰	旭 壹
技術士(港灣 및 海岸)	李 根	玉 宰
會 長	李 成	龍 鎬
技術士(道路 및 空港)	李 龍	鎬 圭
副 社 長	李 龍	鎬 圭
技術士(地域 및 都市計劃)	李 龍	鎬 圭
副 社 長	李 龍	鎬 圭
技術士(上, 下水道)	李 龍	鎬 圭
專務理事(港灣 및 海岸)	李 龍	鎬 圭
常務理事 技術士(土木施工)	李 龍	鎬 圭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65-106號 中央빌딩 TEL 831-4411~6 FAX: 831-4417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36)

## 漁港環境施設



(도2) 압거 표준단면도

공극율 0.5 (유효단면  $A=0.5 A'=155m^2$ )

수위차  $ha=0.02m$

유통량

$$Q_0 = 0.74 U_{max} A$$

$$= 0.74 \cdot (C \cdot \sqrt{2gha}) \cdot A$$

$$= 0.74 \times 0.3 \times \sqrt{2 \times 9.8 \times 0.02} \times 155 = 21.5 m^3/sec$$

② 압거의 단면계산 단면을 도3과 같이 가정하여 계산을 한다.

$$Q = 0.74 \cdot U_{max} \cdot A$$

$$= 0.74 \cdot \frac{1}{n} \cdot R^{2/3} \cdot I^{1/2} \cdot A$$

단,  $n$ : 粗度계수 0.025

$R$ : 徑深

$$\frac{5.5m \times 4.3m}{5.5m + 4.3m \times 2} = 1.67m$$

$I$ : 動水구배

$$\frac{0.02m}{170m} = 0.0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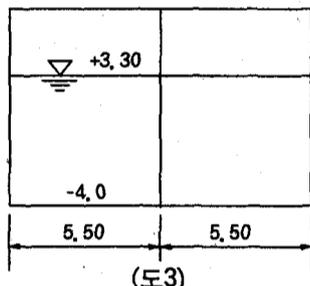
$A$ : 斷면적

$$5.5m \times 4.3m = 23.65 m^2 (1函當)$$

$$Q_1 = 0.74 \times \frac{1}{0.025} \times 1.67^{2/3} \times 0.00012^{1/2} \times 23.65 = 10.83 m^3/sec$$

$$Q_2 = 2 \times Q_1 = 2 \times 10.83 = 21.66 m^3/sec$$

$$Q_0 = 21.5 m^3/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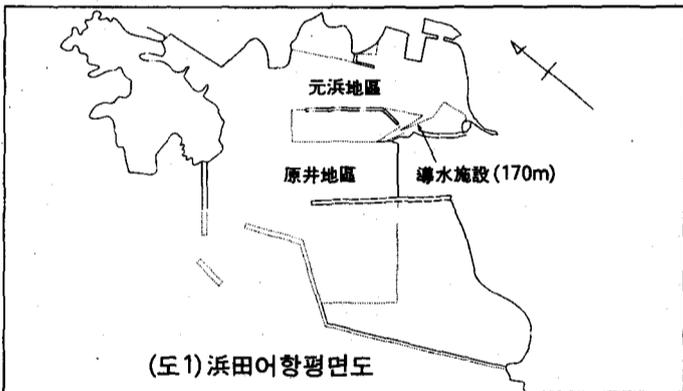


(도3)

3) 浜田어항의 실시  
 浜田어항에 있어서는 도1과 같이 제6차 어항정비계획에서 元浜지구의 서측에 안벽을 계획하게 되었다. 현재의 元浜지구의 박지는 투과성의 방파제에 의하여 해수교환을 하여,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있으나 평면도에 나타나는 바와같은 안벽을 건설하게 되면 元浜지구의 수역은 해수의 흐름이 감소되어 수질악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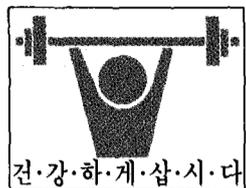
그래서 안벽의 근원(根元) 접합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통수부분을 설치하여 적어도 현상상태의 해수 교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류조사 및 수리계산을 하여 도2와 같은 구조의 압거를 설치하였다.

(수리계산)  
 ①기설투과제의 해수유통량 투과제단면  $A'=311m^2$



(도1) 浜田어항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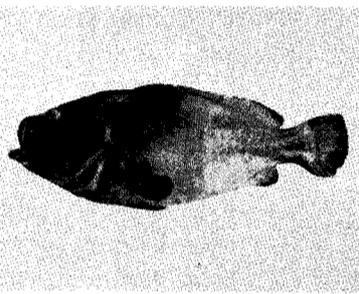
낚시꾼들에게는 양서류(도롱뇽)도 대우받아야 한다. 양서류는 대부분 물고기를 먹어 산란한다. 이를 위해 또는 수온이나 질적 면에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 능성어

낚시꾼에게 큰 인기 먹을 때엔 조심해야

일반적으로 양서류(도롱뇽)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다.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연안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특히 부산 제주 거제해역에 많이 분포한다. 자바리돔과 같은 낚시꾼들에게는 인기 있는 낚시 대상이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른바 '능성어'라고도 불리는 이 물고기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낚시꾼들에게는 인기 있는 낚시 대상이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꾼들은 낚시대를 낚시할 때 양서류를 낚아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소득에는 세금, 종합소득세도 내야

###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이익등에는 비과세

生活經濟

生活經濟

소득세  
 소득세라 함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금에서 그동안 소모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농업소득,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

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리과세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 끝에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사채이자거

나 은행이자거나 모든 이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의 이자는 분리과세되고 있음).  
 · 배당소득: 법인의 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 소득: 부동산이나 선박, 자동차, 광업권 등을 빌려 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일급·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금·보상금·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것이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등  
 · 부동산소득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중 농가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중 군대의 사병이 받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학자금, 여비 등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은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 면제받는 일정한 금액 즉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것을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 \text{과세표준}$$

